

배포 일시	2022. 12. 19.(월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, 이해관계자·전문가와 물류시장 구조개선 논의 착수 - 20일, 「물류산업 발전 협의체」 발족 -

1. 「물류산업 발전 협의체」 출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20일(화)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「물류산업 발전 협의체」를 발족한다.
 -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지만,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 - 이에 따라 운임제도를 포함하여 물류시장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기로 결정하였다.

2. 「물류산업 발전 협의체」의 구성

- 협의체의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게 되며,
 -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화주·운수사·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시장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, 오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~3회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.

3. 「물류산업 발전 협의체」 운영방향

-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, 지입제·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,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특히,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“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,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